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이수원 (동국대학교)

국문요약

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창설되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기관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국방 분야는 물론 국가사회생활 전반을 조직, 지휘하는 국방중심 국가관리체계의 중심기관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가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위상이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기본역할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외선전기구의 모습과 남북문제나 외교에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위상은 당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과의 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체제 내에서는 위상과 역할 모두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국방위원회, 국방중심 국가관리체계, 국무위원회, 국가지도기관.

I. 서론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임과 동시에 국가최고지도기관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 급격히 부상한 국방위원회의 실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구로 보는 연구들과¹⁾ 실권이 없는 기구라는 연구들²⁾ 그리고 최고 권력기구나 실권과 상관없이 국가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연구 등이 그것이다.³⁾ 이러한 연구들은 김정일 시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줄었고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연구들은 3, 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비교하며 김정은 시대의 국정운영을 예측한 것이 대부분이다.⁴⁾ 거기에 이제는 국방위

-
- 1) 이 연구들은 군사 분야의 위상, 역할 확대라는 선군체제 특성에 주목해 김정일 유고시 국방위원회 중심 집단지도체제의 수립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국방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구가 될 것으로 보았다. 고유환, “김정일 건강 변수와 후계구축의 시나리오,” 『KDI북한경제리뷰』(2008.9);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 변화,”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전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pp. 4~25.
 - 2) 이 연구들은 당-국가체제의 특성에 주목하여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대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국방연구』, 47권 2호 (2004), pp. 149~171;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08년 12월 8일), pp. 213~243.
 - 3) 이 연구는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인정하나 당-국가체제 안에서 당의 위상은 넘을 수 없다고 보고 이 기구를 당 정책 집행기구로 분석했다.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세종정책연구』, 2010년 제6권 1호 (2010), pp. 223~280.
 - 4) 김일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 (2012), pp. 91~107;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위상·권한·엘리트 변화를 중

원회가 폐지되었으니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헌법상 국방위원회와 여러 차이점이 발견됨과 동시에 상당 부분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무위원회가 이전 기구의 역할을 상당부분 계승했다는 것이므로 국방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국무위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운용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를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운용과 비교하면 김정은만의 국정운영 방식을 찾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 시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위원회의 위상·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앞선 연구들이 국방위원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연구범위는 대부분 김정일 시대에 한정되어 있고 분석은 당-국가체제의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는 물론 김일성, 김정은 시대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들의 인식과 헌법을 살펴 국방위원회에 부여된 기본 위상과 역할을 살필 것이다. 또한 엘리트 구성, 명령·결정·지시, 최고지도자들의 현지도 등을 통해 실제 위상과 역할을 분석한 후 이 기구의 기본 위상과 역할이 실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 기구에 대한 예측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방위원회가 창설된 1972년 이후의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국방위원회 관련 기사들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대하여 설명된 북한의 문헌들도 분석할 것이다. 거기에 북한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국방위원회 관련 정보 등을 다루

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2013), pp. 69~97.

고 있는 주요 연구들도 참고하여 연구에서 빈 공간에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국방위원회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 같은 체제인 소련과 중국의 관련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실 소련·중국공산당도 비상시, 국정운영을 위해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 같은 국가비상기구를 조직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다 상황 종료 후 폐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소련과 중국은 비상시에도 당-국가체제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북한도 있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통해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 비상기구인 ‘공화국 군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가 종전 후 폐지했었다.⁶⁾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수령의 유일적영도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체제 생존이 위협받던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를 독립시킨 후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활용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당의 운용을 강화하면서 이 기구

5) 소련공산당은 전시 국가비상기구로 1차 대전 시에 노동자·농민국방위원회를, 2차 대전 때는 국가방위위원회를 설립하여 군 지휘를 제외한 전 분야를 지도하는 전시최고기구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중국은 건국 직후 군 지휘권을 정부기구인 ‘중화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에 부여하는데 이는 당시 중국정부에 공산당 외의 세력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4년 9월 공산당은 정국을 완전히 장악한 후 당 정치국에 중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을 지휘하게 된다. Harriet Fast Scott · William F. Scott, *The Armed Forces of the USSR(Second Edition)* (Colorado: Westview Press, 1981), p. 5, p. 23;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1991』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264;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중국공산당역사(상)』 (서울: 서교출판사, 2014), pp. 18~38.

6) 북한은 공화국 군사위원회에 대해 김일성의 영도아래 “국가의 일체 주권을 장악하고 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적 지도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역량을 전쟁승리에로 조직, 동원한 전권기관”이라고 평가하였다.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3; 김일성, “모든 역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 할데 대하여,” 『김일성 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8~19, pp. 24~28.

를 폐지한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수령이 당-국가체제하에서 북한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국방위원회를 활용하였으며 활용도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고 변화되었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

1.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헌법에 드러난 위상

국방위원회의 근본적인 위상을 살피려면 국가에 대한 최고지도자와 헌법의 인식과 법 규정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국방위원회의는 국가기 구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정권에 대해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 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 주”라고 이야기하였다.⁷⁾ 김정일 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김정일은 “공화국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⁸⁾ 그리고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국가에 대한 당적 영도, 정책적·정치적 지도를 강조하며 인민정권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였다.⁹⁾ 이렇게 북한 최고지도자들에게 국

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52.

8)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http://uriminzokkiri.com/index.php?ptype=rozak&no=226#pos>. (검색일: 2016년 6월 8일).

가기구는 인민과 함께하며 당의 의도를 인민들에게 전달하고 인민들이 이를 실행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김정일 시대 이후 국무위원회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구들의 중심은 국방위원회였다.¹⁰⁾

이러한 국방위원회는 1972년 당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의 예하 부분별 위원회 중 하나로 창설되었고¹¹⁾ 이후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은 꾸준히 변화했는데 헌법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들에는 국가는 당의 영도 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는 국방위원회가 당-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헌법상에 규정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김일성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기 힘들다. 1992년 독립기구가 되기 전까지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정령, 결정, 지시 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중앙인민위원회 명의를 군 관련 정령 등에서 군장병과 군부대들에 훈장을 수여하거나 오진우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한 내용이 발견된다.¹²⁾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 분야 보좌 기구로서 이에 대해 관여했을 것이다. 결국 김일성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 관련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9)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10)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구체제를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창경, 『자주와 변영의 문은 선군으로』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4), p. 72; 『로동신문』, 2015년 12월 24일; 2016년 4월 9일.

11) 국방위원회의 창설은 경제·국방병진정책 추진과 연결된다. 북한은 이 정책 추진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1962년 창설하는데 당의 지도를 실현할 국가기구가 없었다. 민족보위성은 군 후방사업이나 군사 외교정도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국방 분야 당 지도 실현을 위해 국방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12) 『로동신문』, 1973년 2월 6일; 1973년 4월 14일; 1985년 4월 14일.

〈표 1〉 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의 헌법 상 위상·역할 변화

구 분	1972년 헌법	1992년 헌법	1998년 헌법	2009년 헌법	
국방 위원장	위상	· 공화국 주석이 당연직 겸직.	· 주석 겸직 문구 폐지. · 김일성이 김정일의 취임 전까지 겸직.	· 주석제 폐지로 국가 최고영도자 됨.	· 국가 최고영도자 · 국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 국방위원장 관련 절 신설
	역할	·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부분 역할 보좌	· 일체 무력 지휘 통솔.	· 일체무력통솔, 국방사업전반 지도.	· 국가 일체 무력 지휘 통솔 · 국가 전반사업 지도 ·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 국방부문 주요 간부 인사 · 외국과의 조약 비준, 폐기 · 특사권 행사 · 국가 비상사태, 동원령 선포 · 명령을 냄.
국방 위원회	위상	·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로 설립.	· 독립 기구로 처음 등장. ·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
	역할	·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 분야 임무 보좌. - 국방사업지도. - 정령·결정·지시·집행정형 감독 및 결정·지시 폐지. - 중요 군 인사 참여. - 군사칭호 제정 및 군관련훈장·명예칭호 수여. -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 국가의 전반적 무력, 국방건설사업 지도. · 중요 군사간부 임명, 해임. ·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 결정, 명령 냄.	· 국가의 전반적 무력, 국방건설사업 지도. · 국방부문 중앙기관 설립, 폐지. · 중요 군사간부 임명, 해임. · 군사칭호 제정, 장령 이상 군사칭호 수여. ·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 결정, 명령 냄.	·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 국가 전반 무력, 국방건설사업 지도 · 국방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집행정형 감독, 대책 수립. ·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의 결정, 지시 폐지. · 국방부문 중앙기관 설립, 폐지. · 군사칭호 제정, 장령 이상 군사칭호 수여. · 결정, 지시 냄.

* 출처: 북한 사회주의 헌법(1972; 1992; 1998; 2009).

13)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p. 215.

그런데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독립된 후 위상과 역할이 점차 명확해지고 확대된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2009년 헌법이다. 2009년 헌법은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게 하여 국방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군사기구 이상의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런데 북한은 2009년 헌법개정이전부터 국가기구체계를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선군정치를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만드는 체계를 완성하였다.¹⁴⁾ 북한은 선군정치 실현을 위한 국가체계의 중심으로 국방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었고 이를 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2012년 4월과 2013년 4월에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국방위원회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가 2016년 6월 29일에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게 된다.

2. 엘리트 구성의 특징

김일성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은 김일성과 항일 무장투쟁을 같이했고 민족보위성과 총정치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최현, 오백룡, 오진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당대 최고 실력자들 중심의 구성은 헌법에 규정된 임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이고 김일성이 직접 군사 관련 업무를 챙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시 『로동신문』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다른 부분별 위원회 위원들은 언급하지 않고 국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¹⁵⁾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분별 위원회 중 최고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4) 강희봉, 『선군정치문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8), p. 43.

15) 『로동신문』, 1972년 12월 29일; 1982년 4월 10일; 1984년 4월 7일.

한편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는 제2경제위원회와 군수공업부 등 군수공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인물들이 상당수 차지했고 군의 후방사업과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성원들도 참여했다.

〈표 2〉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 구성원 변화

구분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1994.7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최광(총참모장)	김광진(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철만(제2경제위원장), 리을설(호위사령관), 전병호(군수공업담당비서), 김봉률(인민무력부 부부장), 리하일(차수)
1998.9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일철(인민무력상) 리용무(차수)	김영춘(총참모장), 연형목(자강도당 책임비서), 리을설(호위사령관), 백학림(법제위원장), 전병호(군수공업담당비서), 김철만(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2003.9		연형목(자강도당책임비서), 리용무(차수)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수(인민보안상), 전병호(군수공업담당비서),
2007.7		김영춘(차수) 리용무(차수)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수(법제위원회 위원장), 전병호(군수공업담당비서), 김일철(인민무력부장), 김격식(총참모장)
2009.4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전병호(군수공업담당비서),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성택(당행정부장), 주상성(인민보안상),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주규창(당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2010.6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장성택(당행정부장)	전병호(군수공업담당비서), 주상성(인민보안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당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2011.4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장성택(당행정부장)	박도춘(군수공업담당비서),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당기계공업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 출처: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p. 263; 통일부, 『2015 북한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2015); 『로동신문』 각호.

그런데 군 지휘와 직접 관련되는 군 지휘관은 김정일 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참여하지 못했고 총참모장들도 2009년부터는 자리하지 못했다. ‘최광’이 잠시 자리했으나 그는 97년 사망했고 이후의 총참모장들

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리용무, 오극렬과 같은 군인들이 부위원장직에 있었으나 이들은 지휘관으로도, 군내 주요직위에도 있지 못했다. 오히려 공안기구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인원 구성은 국방위원회가 군 지휘보다는 군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제 등에 적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된다.¹⁶⁾

〈표 3〉 김정은 시대 국방위원회 구성원 변화

시기	부위원장	위 원
2012.4	김영춘(당군사부장),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장성택(당행정부장)	박도춘(군수공업담당비서),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주규창(당기계공업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룡해(총정치국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2013.4	김영춘(당군사부장),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장성택(당행정부장)	박도춘(군수공업담당비서),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주규창(당기계공업부장), 김격식(인민무력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2014.4	최룡해(총정치국장),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박도춘(군수공업담당비서),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조춘룡(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2014.9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황병서(총정치국장)	박도춘(군수공업담당비서),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조춘룡(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현영철(인민무력부장), 리병철(공군 사령관)
2015.4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황병서(총정치국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조춘룡(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현영철(인민무력부장), 리병철(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춘섭(군수공업부장)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각호; 통일부, 『2015 북한주요인사 인물정보』.

16) 한편 국방위원회 위원직을 실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명예직이나 군사, 공안기관 책임자들이 당연하게 맡는 정책결정기구의 직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나 해당 직책이 당연히 맡는 것이라면 해당 인물이 사망할 때까지 직책과 계급을 보장해 주는 것과, 독립 없이 국가 최고주권기관의 예하 기구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당연직이라도 해당 인물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 정책 추진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구가 일정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헌법을 개정해 가며 국방위원회를 국가기구체계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헌법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도 제2경제위원회와 기계공업부 같은 군수 분야와 공안 기구에 속한 인물들이 여전히 위치해 있었고 군 지휘와 관련된 인물은 드물었다. 리병철이 공군사령관으로서 포함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리용무, 오극렬은 여전히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도 군 지휘보다는 지원에 적합한 구성이었다.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가 군 지휘권과 거리가 있음은 군 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⁷⁾ 김정은 집권 후 국방위원회가 관여한 군 인사 명령은 현영철, 황병서의 차수칭호, 김정은의 원수칭호 수여였다. 그런데 이 명령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이 발표했다.¹⁸⁾ 국방위원회는 군 최고위층에 대한 인사에 관여했지만 단독으로는 발표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단독 명의로 10여 차례의 군 인사명령을 낸다.¹⁹⁾ 이 명령들은 대부분 군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였다. 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권은 국방위원회에 없었으며 이는 군 지휘권도 국방위원회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7)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군 인사 결정 외에 군사와 관련된 명령, 결정, 지시를 발표하지 않았다.

18) 『조선중앙통신』 2012년 7월 17일; 2012년 7월 18일; 『로동신문』 2014년 4월 28일.

19) 『로동신문』 2012년 2월 16일; 2012년 4월 14일; 2013년 2월 15일; 2013년 6월 11일; 2014년 2월 16일; 2014년 6월 13일; 2014년 7월 26일; 2015년 2월 16일; 2015년 10월 25일; 2016년 2월 13일의 관련 기사 참조.

Ⅲ.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국가의 전반적 무력 및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이 기구가 관여한 명령·결정·지시 등을 보면 더 명확해 진다. 다음 <표 4>는 기구 독립 후 확인된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의 군사 관련 명령·결정·지시들이다.

<표 4> 독립 후 국방위원회의 군사 관련 명령, 결정, 지시

시 기	내 용
1992.4.21	·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2.4.21	·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4.7.3	· 조선인민군 차수 주도일의 사망에 대한 부고
1995.10.8	· 인민무력부장 임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원수칭호, 차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8.9.7	· 인민무력부장 임명과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
1998.9.8	· 리용무, 김룡연에게 차수 칭호 수여
1998.9.26	· 인공위성(장거리미사일)발사 관계자들을 위한 연회 개최
1999.4	· 주민대피호 건설을 다그쳐서 후방의 요새화를 빨리 꾸릴데 대하여
2000.9	· 인민무력성의 인민무력부 환원 명령
2002.3	· 군복무 미실시자 군사복무 명령
2002.4.13	· 장성우의 차수 임명
2003.2	· 국가안전보위부 비상경계태세 명령
2009.2.11	·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임명
2009.2.20	· 오극렬을 국방위부위원장으로 임명
2010.5.13	· 김일철 인민무력부제1부부장 해임
2010.9.27	· 리영호에게 차수 칭호 수여
2011.3.16	·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해임
2011.4.7	·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임명

*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각호;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pp. 250~255;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p. 228;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p. 176-177.

92년 헌법 개정 이후 김일성 활동 시기의 국방위원회는 군사칭호 수여와 군 인사의 부고에 관여했다. 이는 국방위원회에 새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예하 기구여서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에 참여하지 못하다 독립되면서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는 군과 공안기관 인사, 군사기관의 개편, 후방지역 방어와 군사동원 등에 관련된 일들로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의 군 지휘권, 군수공업,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한 관련성은 다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지도자들의 현지지도는 이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김정일은 현지 지도를 통해 모든 분야의 현황을 이해한 후 이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인민들에게 설명하며 이의 관철을 독려했다.²⁰⁾ 실제로 ‘선군정치’의 시작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다박솔 초소’를 현지지도 한 후부터이다.

우선 김정일은 군사 분야 지도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실시했다. 군부대시찰, 훈련지도, 군 운영 목장·공장 등의 시찰은 물론 군부대 예술 공연 관람도 최고사령관 명의로 하였다.²¹⁾ 군 지휘가 최고사령관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방위원회 명의로 된 군 지휘와 직접 관련된 명령 등이 없는 이유가 설명된다. 그런데 다른 분야 현지지도 보도의 본문에는 김정일의 직위들 중 ‘최고사령관’은 대부분 제외되고²²⁾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은 포함되어 있다. 국방위원회는 군 지휘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군수공업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확인

20)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

21) 김정일 군 관련 현지지도 기사는 대부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을 ○○ 하시였다”라는 제목이었다.

22) ‘최고사령관’직이 본문에 언급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 되는데 이는 군부대가 건설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이다.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 군수공장 현지도도 보도를 보면 본문에서 대부분 ‘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만 언급되었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대부분 공장이 위치한 지역 당책임비서, 국방위원회와 군수산업에 관련된 인사들이었다.²³⁾ 이러한 양상은 김정은 시대에서도 계속됐다. 김정은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군수품 생산 공장이라고 확인된 곳을 모두 59회 현지도 했는데²⁴⁾ 이때도 국방위원회 소속 인사나 예하기관 인물들이 수행했다.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김정일 시대와 같이 무기생산과 후방사업 전반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23)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병기 공장들을 모두 84회 지도했다. 백환기, “북한 군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방연구』, 제39권 1호 (1996), pp. 69-102;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78-84;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북한의 산업』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p. 169에 제시된 공장들을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해당공장 현지도기사, 『한국일보』 2011년 1월 19일, 『연합뉴스』 2013년 6월 23일, 2014년 5월 27일, 2016년 3월 2일의 기사, 통일연구원,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의 내용과 대조 확인.

24)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publicEvent.do> (검색일: 2016년 2월 16-17일);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김정은 현지도 기사 및 『연합뉴스』 2013년 6월 24일, 2013년 7월 3일, 2014년 5월 27일, 2015년 1월 16일, 2016년 3월 2일, 2016년 3월 22일, 2016년 3월 24일, 2016년 4월 2일, 2016년 4월 8일, 『데일리NK』 2015년 4월 8일.

2. 국정운영 전반에 관여

김일성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헌법상 국방 분야 외에는 관여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다른 분야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이후의 국방위원회는 국방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관여한다. 우선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외교에 나섰다. 이는 김정일의 정상외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이 정상외교에 나선 사례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정도이다. 이중 러시아와는 ‘조로공동선언’과 ‘모스크바 선언’을 하며 서명을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했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서명과 일본과의 ‘조일평양선언’에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서명하였다.²⁵⁾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과의 외교에서는 총비서직을 내세웠다. 후진타오는 김정일과 만나 한 연설들에서 김정일을 총비서로 칭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총비서도 2007년 방북해서 김정일을 총비서로 칭하였다.²⁶⁾ 그러므로 김정일이 당총비서로 공식적으로 취임한 후에는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에는 당이, 비 사회주의권 국가들에는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나섰던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다른 기능은 다음 <표 5>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표 5>에 제시된 김일성 생존 시 발표된 결정 등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같이 참여한 것이다. 당 기구들 보다는 후순위였지만 국가기구들 가운데는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국방위원회가 독립되자마자 국정운영의 중심 기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로동신문』 2000년 7월 21일, 2002년 9월 18일, 『조선중앙통신』 2001년 8월 4일.

26) 『로동신문』 2005년 10월 29일, 2007년 10월 17일,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30일.

〈표 5〉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 관여 명령, 결정, 지시, 발표

시 기	내 용
1992.4.14	김일성에게 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2.4.21	김정일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1994.7.9	김일성 사망 발표, 장의위원회 구성
1995.6.12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행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 데 대하여” 채택
1995.11	금강산발전소 제1단계공사를 1996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데 대하여
1997.7.9	‘주체연호’ 제정 및 ‘태양절’ 명명
1997.7.16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보가지(복어)를 적극 동원 이용할 데 대하여
1998.7	전국이 총동원되어 강원도 토지를 정리할 데 대하여
1999.1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칠 데 대하여
1999.7	평양북도 토지를 정리할 데 대하여
2000.2	산림조성과 보호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
2000.2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대규모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
2000.6.29	황해남도 토지를 정리할 데 대하여
2000.9	양식장 건설 관련 지시
2000.12	전력증산 관련 지시
2001.2.28	전당, 전군, 전민이 철길의 불량개소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정시운행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하여
2001.8.18	김정일의 러시아 공식방문 후 귀국 공동보도
2001.11	평양시 개보수 관련 명령
2001.12.5	전당, 전군이 총동원되어 객차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2002.5.2	평양시와 평남도, 남포시 토지를 정리할 데 대하여
2002.12.27	평북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
2003.7	평양시 보수사업 명령
2003.9	대형주택 거주자 벌금 징수 명령
2003.10	중고차 운행 중지 명령
2004.4.16	군민의 힘을 합쳐 금성간석지 건설을 완전히 끝낼 데 대하여
2004.5.15	이동통신망 손전화기를 일체 이용하지 말 데 대하여
2005.4	국제전화 축소 명령
2006.1	철광석·아연정광 수출 금지 지시
2007.2	일제 자동차를 회수할 데 대하여
2007.4	수산물 수출 금지 지시
2010.1	조선대풍국제투자 그룹의 활동을 보장할 데 대하여
2010.1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 조선대풍국제투자 그룹 조정위원회를 설립함에 대하여

* 출처: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p. 252, p. 260;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p. 228;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pp. 176-177; 오향균, “김정일 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북한 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81 등을 정리.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외자유치 및 투자, 공안, 대규모 건설 공사와 주민동원 등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방위원회가 조선대풍국제투자 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조선대풍국제투자 그룹은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이며 국가개발은행은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와 함께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금융기관”이었다.²⁷⁾ 국방위원회는 외자유치 및 유치한 외화를 국가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관여한 것이다.

그리고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국토개발을 위한 결정 및 명령과 이의 진행을 위한 국민 동원을 지시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본, 기술 부족,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체할 수단이 인력 동원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양식장, 수산물, 지하자원에 대한 생산과 수출 등에도 관여하였다. 사실 북한이 수출 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된다.²⁸⁾ 그리고 곡물의 생산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북한은 이를 보완해 줄만한 품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외화벌이와 식량 확보에서 중요한 품목들을 통제한 것이다. 그 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결정서나 ‘태양절’과 같은 기념일 제정, 건강문제, 차량운행 문제 등에도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는 공안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벌금징수, 핸드폰이나 국제전화 통제, 일제자동차 운행 통제 등을 지휘했다. 특

27)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20일; 2010년 3월 10일.

28) 2004년까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수산물이었고 이후에는 지하자원이 최대 수출품이다.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통계청 정책연구용역(성남: 세종연구소, 2011), p. 75.

히, 핸드폰이나 국제전화를 통제하는 문제는 외부 정보나 문화 유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사정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는 공안기관들을 활용해 사회를 통제하고 외부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이다.

한편, 2016년 6월까지 국방위원회에 대한 헌법상 변화는 없었으니 김정은 시대에도 기본 역할엔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와 다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김정은 시대 국방위원회 관여 발표 내용 분류³³⁾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3	16	16	31	20	10
군사칭호수여	6	5	0	1	0	0
대남비방	23	8	4	7	4	0
대내결속	3	0	3	0	0	0
북한 측 의사 전달	35	2	6	11	8	8
외국 기관과의 협조	2	1	0	0	1	0
유엔 제재비난	2	0	1	1	0	0
대미 제안, 비난	17	0	2	9	4	2
기 타	5	0	0	2	3	0
비 고	.	· 2014년 기타: 전병호 부고, 북한 비판 영국 드라마 제작 비난. · 2015년 기타: 김격식, 리을설 부고, 일본 총리의 패전 70주년 담화 비난.				

*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

김정은 시대에만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은 우선 대외선전 기능이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대외선전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기 전 국방위원회 명의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

²⁹⁾ 모든 발표를 적으면 더욱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나 지면 제한 상 필자가 내용을 확인 후 분류해 정리하였다.

표한 것은 2010년과 2011년에 4차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 다였다.³⁰⁾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후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담화, 성명 등이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급격히 늘어났다. NLL, 한미연합훈련, 핵과 미사일, 천안함 폭침, 소니사 해킹, 개성공단, 각종 회담제의, 인권, 5.24조치 해제 등 남북은 물론 국제적인 관심사들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심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국방위원회 예하 기관인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외부영상물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했고 장성택의 사형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결정한다.³¹⁾ 또한 2014년 5월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건의 책임자로서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은 주민들 앞에서 사과한 후 소장으로 강등된다.³²⁾ 강압적인 모습과 부드럽게 민심을 달래는 모습을 동시에 보인 것이다.

한편 국방위원회가 건설 분야도 지도했음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직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은 2014년 5월 19일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으로는 최초로 김정일의 대성산종합병원 현지지도에 동행한 후 2016년 7월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주요 대상 건설장에 김정은을 수행하며 등장했다. 이것은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공개된 현지지도를 살펴보면 김정일은 주요 건설 현장을 모두 127회 방문했고 김정은은 2012

30) 최초의 국방위원회 성명은 한국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준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 검열단 파견, 한미연합군사훈련 비난, 김정일 조문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 비난,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대변인 성명 및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5일; 2010년 5월 20일; 2010년 7월 24일, 2011년 12월 30일;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p. 178.

31) 『조선일보』 2013년 10월 30일; 『로동신문』 2013년 12월 13일.

32) 『로동신문』 2014년 5월 18일; 『연합뉴스』 2014년 12월 18일.

년 1월부터 2016년 6월 25일까지 모두 70회 현지도도를 실시하였다. 김정은은 4년 만에 김정일이 최고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동안 건설현장을 방문했던 횟수의 55% 이상 방문한 것이다.³³⁾

김정은이 대규모 건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과 보여주기와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후 외국과 정상외교를 하지 못했고 경제 등 국민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성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으로 고립만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인민생활 향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건설공사였을 것이고 이것을 국방위원회가 담당했던 것이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중요 외교현안 해결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2014년 7월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들을 해제하고 북한은 남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국방위원회이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국방위원회 소속인사와 예하 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사들이 임명됐다.³⁴⁾ 국방위원회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일에 직접 나선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남북관계의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와 청와대의 직접접촉으로 주장하는 이산가족상봉을 합의했던 2014년 2월 남북고위급접촉은 국방위원회가 직접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성사됐다.³⁵⁾ 또한 2014년 10월의 남북 군사당국 간 접촉에도 참여했

33)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publicEvent.do>, (검색일: 2016.6.25);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김정은 현지도도 기사; 통일연구원, 『김정일 현지도도 동향 1994~2011』의 내용을 분석.

34) 『조선중앙통신』 2014년 7월 4일.

35) 『조선중앙통신』 2014년 2월 12일; 2014년 12월 19일.

다.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리선권 정책국장, 곽철희 정책 부국장이 참석하여 천안함, 연평도 사건, 대북전단살포, NLL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³⁶⁾ 이렇게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대내외 선전, 민심 통제, 대규모 건설공사관리, 외교현안과 남북문제 해결 등의 역할도 수행했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확인 가능했던 외자유치나 민생, 주민동원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폐지되기 전까지 국방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변화는 없었으니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에는 김정일 시대의 기본 역할에 대남문제나 외교 문제 등의 분야가 큰 비중으로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수령의 정책과 연계된 변화

국방위원회는 최초에 중앙인민위원회 예하 기구로 만들어져서 결정, 지시, 명령 등을 발표하지 못해 김일성 시대의 위상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의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국방위원회의 부상을 불러온다.

당시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에서는 개혁·개방과 민주화열풍으로 공산권 블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중국도 천안문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물결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우방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구나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북한의 우방들과 한국은 수교를 연달아 체결하여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어 갔고 이는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1994년 전쟁 직전까지 갔던 제1차 핵 위기 또한 북한을 불안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³⁶⁾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16일; 『세계일보』 2014년 10월 15일; 『동아일보』 2014년 10월 16일.

이러한 정권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이의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요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군사 강화를 강조한다.³⁷⁾ 점차 악화되기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핵 문제로 전쟁의 위협에 까지 노출된 북한이 군을 중심으로 체제를 결속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은 개혁·개방은 생각 할 수 없었던 당시 북한 지도부의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다.³⁸⁾ 이 결정은 군사와 군사 전문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켰다. 1992년 국방위원회의 독립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는 김일성의 사망을 시작으로 북한에게 더욱 큰 위기가 닥친다. 그의 사망은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퍼지게 하였고 후퇴만 하고 있던 경제는 계속된 자연재해로 치명타를 입게 된다. 거기에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국제 질서까지, 이러한 위기의 지속은 김정일로 하여금 ‘선군정치’를 시작하게 한다.³⁹⁾ 그리고 선군정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국가 최고영도기구로 만들었고 98년 개정부터 헌법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김일성은 당을 통치활동에 적절히 활용했다. 정책 결정에서 당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유일지배체제를 극대화시키는 통치를 함으로써 당의 위상과 역할은 다른 공산권 국가는 물론 김일성 때보다도 위축되었다. 대신 국방위원회 같은 실무기구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⁴⁰⁾

37) 김정일은 1991년과 1992년에 체제 보위를 위해선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 238;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

38)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35.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8, p. 95.

하지만 김정은은 당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통치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당 기구들의 회의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⁴¹⁾ 이 회의들을 통해 김정은은 국정운영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했고 2015년 8월 북한군의 불법적인 한국군 GP내 지뢰매설로 촉발된 안보위기를 관리했다. 그리고 리영호와 장성택이라는 거물들을 제거했으며 당과 국가기구의 구성도 논의했고 최고지도자의 정책방향도 당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이 중요정책의 방향설정과 결정 등을 당을 통하는 정식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김정은은 당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완전한 개막을 알리는 것임과 동시에 당의 위상과 역할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당 중심 국정운영은 국방위원회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기구로서 당의 지도를 받아야했던 국방위원회는 그 위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만약 국방위원회가 당과 같은 위상이었다면 주요 정책결정과 안보위기 관리에 참여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위기를 관리했다. 그런데 위상이 줄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당 이상으로 부상된 김정일 시대의 모습이 비정상인 것이다. 즉, 김정은의 당 중심 국정운영은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정상으로 되돌린

40) 김정일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7) 등을 참조.

41) 김정일 사망 후 현재까지 당정치국 회의 5회, 당정치국 확대회의 3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회, 당중앙위원회 당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 1회, 당대회 1회 개최되었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확대회의 6회, 비상확대회의도 1회 개최하였다.

것이다.

4. 신설된 국무위원회와의 비교

2016년 6월 29일 국방위원회는 국무위원회로 바뀌는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개정된 헌법의 국무위원회 관련 내용은 국방위원회의 그것에 바탕을 두었으나 위상과 역할이 국가체제 내에서 더욱 확대되었다.⁴²⁾ 국방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국방 분야에서만 최고지도기관이었으나 국무위원회는 법률상으로도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 되어 완전한 국가최고지도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해당되었던 조직과 인사 분야 등에서의 역할이 국가전체로 확대되었다. 즉,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무위원회에서 국가 단위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전시 비상기구인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기구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과거 유사사례를 통해 역할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는 소련의 2차대전 당시 국가비상기구였던 국가방위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공화국 군사위원회’, 그리고 전시사업세척에 명시된 국방위원회의 전시 임무를 들 수 있다.

우선 소련의 국가방위위원회는 전시 정치, 외교, 경제 등 국가의 전 기능을 통제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과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권한도 주어졌다. 그리고 당, 군,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⁴³⁾ 북한 ‘공화국 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역량을 전쟁 지원

42) 『로동신문』 2016년 6월 30일.

43) 이 기구는 스탈린이 의장이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의원, 후보위원들로 인원이 구성되었다. 전시 비상기구를 당이 통제할 것이다.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

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권한과 후방지역을 통제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했다.⁴⁴⁾ 또한 2004년 내려진 전시사업세칙에는 국가의 모든 사업이 국방위원회에 집중되게 되어 있었고 후방지역을 방어하고 통제하는 임무도 부여되어 있었다.⁴⁵⁾

이러한 사례들로 보았을 때 새롭게 등장한 국가방위위원회는 전시 국가의 모든 기능을 주관하여 전 역량을 동원하고 후방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지휘권은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기구들 모두 군 지휘권을 가지지 못했고 북한은 전시사업세칙을 보아도 전시 최고사령부가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무위원회의 엘리트 구성을 분석해도 국방위원회보다 역할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은 황병서(총정치국장), 박봉주(내각 총리), 최룡해(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은 김기남(당선전담당 부위원장), 박영식(인민무력부장), 리수용(당국제담당 부위원장), 리만건(당군수공업담당 부위원장), 김영철(당대남담당 부위원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리용호(외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수공업담당자와 공안기관 담당자들의 여전한 포함은 국무위원회가 군수공업과 사회통제를 계속해서 이끌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⁶⁾ 하지만 그 외의 인물들은 국무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졌음을 보여준

1991』, p. 264; Harriet Fast Scott · William F. Scott, *The Armed Forces of the USSR (Second Edition)*, pp. 23.

44) 김일성, “군사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4~28.

45)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전시사업세칙』, 1장.

46) 중요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건설국장 마원춘이 국무위원회 건설국장으로 소개되며 김정은의 중요대상 건설장 현지도도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6년 7월 3일; 2016년 7월 14일; 2016년 9월 15일; 2016년 10월 18일.

다. 김영철의 합류는 국방위원회의 대남분야 역할이 국무위원회에서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거기에 리수용, 리용호 같은 외교 전문가들의 합류는 핵과 미사일 문제로 고립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역량 강화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각 총리와 선전담당 부위원장의 추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즉, 김정은은 국무위원회를 통해 국방과 사회통제 분야는 물론 대남, 외교, 경제, 선전선동 등의 국정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그리고 국무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은 국방위원회의 실제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상으로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장의 지도를 집행하며 국정전반에 관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에 맞게 변경한 것이다. 국가최고기구에게 ‘국방’이라는 역할을 한정짓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헌법과 명칭 변경은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연결된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화된 위기관리기구였다.⁴⁸⁾ 이러한 기구 대신 국가최고기구에 걸맞은 헌법과 명칭을 가진 기구를 창설했다는 것은 비상시에 맞춰진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하면 많이 안정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으나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는 1%~1.3%의 꾸준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1인당 GNI, 무역총액, 수산물 생산량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⁴⁹⁾

47) 현재까지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국무위원회가 관여한 명령, 결정, 지시, 성명, 담화 등을 현재까지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내세우며 리우올림픽 현장을 찾아 브라질 대통령과 IOC위원장 등을 만나 담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외교에 관여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6년 8월 7일.

48) 김진옥, “선군정치의 법적담보는 어디에 있는가.” (<http://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594>, 검색일: 2016.9.24).

또한 2016년 11월 김정은은 총정치국장을 1차례, 총참모장을 4차례, 인민무력부장을 5차례 교체하였는데 이 중에는 리영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성택 등도 교체되었다. 김정은이 자신의 의도대로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로 발전되는 핵과 미사일 기술은 북한의 입장에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기존에 국방에 집중되었던 역량을 경제 등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⁵⁰⁾ 급변사태를 언급하는 일부의 분석과는 다르게 김정은 정권은 매우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상상황에 맞춰진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상황판단을 하게 했을 것이고 이것이 비상기구였던 국방위원회의 폐지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국무위원회의 창설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직 취임은 김정은 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이미 당위원장과 최고사령관직 취임으로 당과 군에 대한 영도체계를 확립하였다. 거기에 김정일 시대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최고기구를 만들어 수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결론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기본인식이나 헌법에도 잘 나타나있다. 즉, 국방위원회 위상과 역할은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 안에서 수령에 의해 규정되고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이로 인한 국방위

49) 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236 (검색일: 2016.7.15).

50)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31일; 『로동신문』, 2014년 3월 31일.

원회의 부각은 이 기구에 대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김일성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예하 기구 중 최고 위상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나 독립기구가 아니라는 한계로 독립된 활동은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 분야 보좌기구의 역할에 충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 위기극복을 위해 선택했던 선군정치 실행을 위한 국가기구체계의 중심이 되었다. 군사 분야에서는 군수공업이나 군 인사, 군사기관의 개편, 후방지역 방어와 군사동원 등을 지도했고 비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 외자유치, 사회질서 유지 및 주민 생활 지도, 대규모 건설 공사와 이를 위한 주민동원 등 비군사 분야 부문에도 관여하였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변함없었다.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상은 김정은의 의도에 따라 당의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김정일 시대보다 줄었지만 역할에서는 이전 시대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외선전기구로서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 김정은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남북문제나 대내외 현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남북문제나 외교에서는 직접 나서서 남북 군사당국 간 접촉 등에 참여하고 일본인 납북자문제 해결 등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였음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항상 ‘국가기구체계의 중심’이라고 한다는 점과 당의 국가기구 영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들도 국가기구는 당의 지도를 실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도 당의 정책과 노선을 따라야 하는 국가기구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리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체제상으로는 국가 최고기구 이상의 위상을 가지지 못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활발했던 국방위원회의 활동에 비해 당의 역할이 적어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의 실제 역할이 당의 그것을 침범했거나 넘어섰어도 기본 체제는 유지한 상태에서 수령이 국정 운영 목적상 그렇게 이용한 것이지 당-국가체제를 뒤집어 ‘국가기구체계의 중심’ 이상의 위상을 부여한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당의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쓰며 그 안에서 국방위원회의 국가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⁵¹⁾ 결국 수령은 국방위원회를 당-국가체제라는 틀 안에서 활용한 것이며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수령의 정책에 따라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한편 2016년 6월의 헌법 개정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는 짧은 후계수업기간과 일천한 정치경력 등으로 자신만의 정치를 할 수 없었던 김정은이었다. 오히려 김정일의 유산을 활용해야 했다.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자신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된 것과 ‘김정일 애국주의’를 만들어 이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김정일의 유산인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했다는 것은 이제는 김정일의 시대는 마무리되었고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에 국무위원회는 국방위원회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무위원회의 역할 범위가 법률상 국가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엘리트들도 국방위원회 시절보다 더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이다.

■ 접수: 2016년 10월 31일 / 심사: 2016년 11월 1일 / 게재확장: 2016년 12월 1일

5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pp. 89-92.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강희봉. 『선군정치문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8.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김창경. 『자주와 변영의 문은 선군으로』.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4.
-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서울: 법원행정처, 2010.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성남: 세종연구소, 2011.
-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1991』.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전시사업세칙』.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저. 홍순도 · 홍광훈 역. 『중국공산당역사(상)』. 서울: 서교출판사, 2014.
- 통일연구원.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통일부. 『2015 북한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2015.
-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북한의 산업』.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7.

국문 논문

- 고유환. “김정일 건강 변수화 후계구축의 시나리오.” 『KDI북한경제리뷰』 (2008.9).
-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한반도, 전환기

- 의 사색』.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08.12.8).
-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김일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5호, 2012.
- 백환기. “북한 군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방연구』, 제39권 1호 (1996).
-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위상·권한·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2013).
-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 변화.”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전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 이대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국방연구』, 47권 2호 (2004).
-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북한 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세종정책연구』, 2010년 제6권 1호, 2010.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기타

- 『데일리NK』, 『동아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2008년 9월 5일). <http://uriminzokkiri.com/index.php?ptype=rozak&no=226#pos>. (검색일: 2016.6.8).
- 김진욱. “선군정치의 법적담보는 어디에 있는가.” <http://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594> (검색일: 2016.9.24).
- 『북한 사회주의 헌법』(1972, 1992, 1998, 2009, 2012).
-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publicEvent.do>.
- Hariet Fast Scott · William F. Scott. *The Armed Forces of the USSR(Second Eedition)*. Colorado: Westview Press, 1981.
-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d=2236 (검색일: 2016.7.15).

Alteration Analysis on the Status and Roles of the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Lee, Su-w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as an unnoticed organization created to assist defense-related works of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in Kim Il-sung era. But the organization had become a central organ mainly constituting and guiding not only defense areas, but also the overall national and social systems during the Kim Jong-il era.

While its status degraded during the Kim Jong-un era as Kim runs state affairs mainly in his party, its main roles remain unchanged. Rather, its roles have become widened considering its role as an organ of propaganda or its coming to the front of diplomacy. Alth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Office of State Affairs, which substitute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the party is expected to be unchanged, the status and role of the Office of State Affairs will be considered to be improved in the system of state.

Key word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defense-oriented national management system, Office of State Affairs, national supervisory organizations.

이수원(Lee, Su-won)

한림대학교에서 학사, 경희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북한 주체사상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2011), “북한 음악을 통해 본 경제발전 전략”(2011), “김정은 시대의 대남비방 분석”(공저, 2012),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공저, 2013)가 있다.